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몸의 생활을 위해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삶

성경: 갈 2:20, 엡 3:17상, 빌 1:21상, 롬 8:4, 12:4-5

I.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 갈 1:2, 15-16, 2:20, 4:19.

- A.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 빌 1:21상, 엡 4:12, 16.
 - 1.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2.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의 절정, 곧 가장 높은 요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B.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를 계시하는 네 개의 중요한 구절이 있다 — 요 6:57, 14:19, 갈 2:20, 빌 1:21상.
- C.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 — 빌 1:21상.
- D. 우리의 주된 관심은 외적인 어떤 것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자아를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는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어야 한다 — 갈 2:20.
 - 1. 우리는 우리의 일이나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과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자주 빗나가게 된다.
 - 2. 사실상, 그러한 문제들은 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 3.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때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다.
- E.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며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 엡 3:17상, 갈 2:20.
 - 1. 그분과 우리는 반드시 실질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 고전 6:17.
 - 2.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한 인격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 F.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우리의 온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을 관심하여,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리스도를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 — 갈 2:20, 빌 3:9-12.
- G.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극도로 사랑할 것이 요구된다 — 막 12:30.
 - 1.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다 — 고전 2:9.
 - 2.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살 수 없다.
- H.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분 안에 있게 된 우리 또한 사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4:19.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안에서 사신다.
 - 2.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산다면, 그분의 삶 또한 우리의 삶 안에 있을 것이다 — 갈 2:20.

II. 그리스도를 사는 실질적인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 빌 1:21상, 롬 8:4.

- A.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우리의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B.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행하다’는 말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방식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에서의 일반적인 행함을 의미한다.
- C.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영은 그 영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일치한다.
 - 1.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다 — 고전 6:17.
 - 2.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 사람의 영을 갖고 있다.
- D.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바로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다 — 롬 8:4.
 - 1. 모든 것에 대한 열쇠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신 놀라우신 영 안에서 발견된다 — 요 3:6.
 - 2.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하는 것이다 — 롬 8:4.
 - 3. 영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여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때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도록 그분께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 엡 3:17상.
 - 4.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상호 거함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 5.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진다 — 마 16:24.
 - 6.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지를 시험한다 — 롬 8:4-5.
 - 7. 사탄을 잠잠하게 하는 최상의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 계 12:11.
- E.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조망이 필요하다.
- F. 인도하는 이들의 주된 관심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 롬 8:4.
- G.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 롬 8:5-6.
 - 1.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영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육체를 따라 한 것이다.
 - 2.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오직 두 근원과 두 상태가 있는데, 바로 영과 육체이다.
- H.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다른 방면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결과여야 한다 — 롬 8:4.
 - 1. 우리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산출될 것이다.
 - 2. 우리의 복음 전파와 목양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산물이어야 한다 — 마 24:14, 요 21:15-17.
- I.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일들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한 백성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어야 한다 — 롬 8:4.
- J.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 고전 14:26, 빌 3:8, 12, 롬 8:4.
- K. 인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 롬 8:4, 빌 3:17, 히 13:7.
 - 1. 인도하는 이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실질적인 실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2. 인도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서, 주님을 단체적으로 누리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빌 3:17.

L.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 — 살전 5:17.

1.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은 끊임없이 호흡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2.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함으로써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 록 18:1.

III. 우리가 더 많이 영을 따라 행할수록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사시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몸의 생활을 위해 그분을 살게 된다 — 롬 8:4, 12:4-5.

- A.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영을 따라 살 때,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정착하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고 점유하실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 엡 3:17상.
1.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의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삼일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 — 갈 4:19, 롬 8:4.
 2.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삼일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산 것의 자연스러운 산물일 것이다 — 요 14:19-20, 15:4-5.
- B.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 C.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체험한 데서 산출된다.
1.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 롬 12:4-5, 8:4.
 2.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질 수 없다. 몸의 생활은 육체에 속한 행함에 의해 무효화된다.
 3. 모든 믿는 이들은 몸의 지체들이지만, 몸의 실행적인 면은 믿는 이들의 행함에 달려 있다.
 4. 우리가 참으로 영을 따라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몸의 생활 안에 있을 것이다 — 롬 8:4, 12:4-5.
- D. 우리는 한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회복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그분의 살아 있는 지체들로 만들어 그분의 몸이 건축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 골 2:9, 3:4, 고전 15:45하, 갈 2:20, 엡 4:1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삶

주님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에 관해 많은 것을 보여 주셨다. 나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계시와 이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열린 것처럼 철저하고 분명하게 열린 적이 없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상을 보는 것과 이상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상을 받았지만 그 이상의 실제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지방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문제가 거의 없고, 그러한 상황은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본 것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을 보았지만 그 이상에 어울리는 생활을 살지 않는다. 이것은 큰 필요이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서 본 이상에 따라 매일 실질적인 생활을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이상을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보았다. 한 면에서 적어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에 관해서 어느 정도 보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에 부합하는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부족하다. 비록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본 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도하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일이나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과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자주 빛나나게 된다. 사실상, 그러한 문제들은 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노선에 대한 우리의 이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인도하는 형제 한 명이 교회의 새로운 집회 장소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나의 부담은 교회들이 집회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있다. 물론 집회소는 유용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회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외적인 어떤 것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자아를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는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그 진리를 체험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많은 메시지를 들은 후에도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똑같아서 안 된다. 어떤 성도들은 집회가 끝나자마자 세속적인 대화를 시작한다. 이러한 대화는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에 있는 새들처럼 말씀을 낚아채 간다. 최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근거하여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매일 실행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는 한 백성을 원하신다.

교회들은 수년 동안 생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생활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상적인 성장을 산출하는 합당한 생활을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방에서 인도하는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교통해야 한다. 우리의 참된 책임은 우리의 생활이며, 우리의 생활은 영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인도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때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이상에 부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중요성, 11-14쪽)*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를 보아 왔다(빌 1:21, 갈 2:20). 최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실질적인 길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종종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빛나간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해서 빛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우리의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 많이 가르쳤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교부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다른 해석들과 교리들 때문에 더욱더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19세기 동안 여러 가지의 일들과 가르침들을 강조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장로들인 우리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집회에서 영을 훈련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어야 한

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께 회개할 것이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대할 때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종종 필사적으로 기도한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기도하기도 쉽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영적인 활동들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곧 큰일만이 아니라 편지를 쓰거나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등의 작은 일에서도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어떤 일을 영을 따라 행할 수 없거나 어떤 말을 영을 따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서나 혹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살지 않거나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은 연극일 수 있다. 우리는 집회에서 사는 방식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

영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행함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한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의하면,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오직 두 근원과 두 상태가 있는데, 바로 영과 육체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혹은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지 아니면 비난하는지와 같은 외적인 행동들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랑도 영을 따르지 않는다면 육체를 따른 것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라 해도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체를 따른 것이다.

영인 것을 아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이 아닌 것을 알기란 쉽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 영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회 중에는 영을 따라 행하지만 집회가 끝나면 종종 육체를 따라 자유롭게 말하고 행한다. 단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는 것, 심지어 그 영의 인도에 근거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도록 그 영의 인도를 받지만, 후에는 그것을 육체를 따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해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영을 따라 일상생활을 사는 것의 결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다른 방면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결과여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산다면, 교회 안에는 큰 증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자동적인 결과로 많은 복음 전파가 있게 될 것이다. 수년 전에 어떤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이들을 접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의했지만, 결국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한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영을 따라 행하고 그러한 생활을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한다면,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영을 따라 행하고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집회가 끝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새로운 이들은 종종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선호에 기초하여 대화할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힘과 갈망을 타고난 입맛에 맞는 데에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혹은 새로운 믿는 이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한 백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행한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그러한 생활로부터 자연스럽게 산출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의 참된 충격력은 우리의 생활에서 온다. 우리의 복음 전파나 목양은 활동들이 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일상생활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한 생활은 또한 거룩함과 승리와 영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러한 모든 방면들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을 따라 행하는 일상생활은 우리가 집회에서 영을 해방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회에 가져올 만큼 충분한 그리스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들은 집회에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단체적인 방면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한동안 높은 수준의 단체적인 생활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실행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누림은 결국 감소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과거에 높은 수준의 단체적인 생활을 체험했다. 오늘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실질적인 실행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도하는 이들을 도와서, 주님을 단체적으로 누리는 것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단체적인 누림의 분위기가 높은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단체적으로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는 것은 죽음의 표시이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단체적인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실행이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환경 안에 두실 수 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으로 유배당했을 때 단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영 안에 있었다(계 1:10).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영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기를 갈망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많은 것들, 곧 우리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환경과 같은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표적에서 빛나간다.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는 비밀하고 추상적인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치거나 소홀히 여기기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갈망을 보여 주셨고, 그분은 우리가 빛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하고, 이것에 완전히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살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이러한 생활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느린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다. 생명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항상 유력하다. 우리는 조직적인 일은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쳐 두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한 행함을 묘사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교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분부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함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 행함은 그 영과 우리의 영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죽을 몸에 영향을 준다.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된 영을 이루시며, 우리가 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생명이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에 전달된다(롬 8:10, 6, 11).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달성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셨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시다(롬 8:9, 11). 그러므로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시다. 이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롬 8:16). 이 두 영은 하나이다. 삼일 하나님은 영 안에 있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8장의 초점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실지적인 길이다. 그러한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필요하다. 우리가 한 일의 외적인 결과는 지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중요성, 17-21, 23-26쪽)*